

2023.01.17.(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우원식 의원실) 010-9254-9137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음력설을 맞아 “민생을 달리다” 현장 방문 첫 일정 한국와이퍼 인산공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진행

**2023년 1월 17일(화) 10:00, 인산 한국와이퍼 공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원)는 1월 17일(화)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한국와이퍼(현대차납품 와이퍼 생산업체) 인산공장을 방문하고 고용위기에 놓인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우원식,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유상기 경기 부지부장 및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장과 한국와이퍼 소속 최윤미 분회장 및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방문지인 인산 한국와이퍼 공장에서는 사측의 일방적 청산 통보와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이 15일째로 노조는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사측의 청산·매각에 반대하여 기계설비 반출 저지를 위해 공장내 노조사무실과 공장 앞 농성을 진행중이다.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의 한국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대·기아완성차 와이퍼납품의 28%를 차지하는 회사이다. 2018년 갑작스런 신차수주 중단과 이어진 납품계약 중단에 불안을 느낀 소속 노동자들이 `18.6.13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분회 설립 후 고용안정을 요구하여 `20년 12월·`21년10월 2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매각, 청산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고용안정합의서를 덴소코리아·덴소와이퍼(일본)·한국와이퍼 등 일본덴소측 회사들과 연대보증하여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와이퍼 사측은 `22.7.7자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다는 비판에도 일방적으로 청산계획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2020년에는 회사의 청산계획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노동자 개인 면담과 문자통보를 통해 희망퇴직을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노조측은 합의 없는 청산을 반대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단식농성이 `22.12.21까지 국회앞에서 44일간 이어진 바 있다.

최 분회장의 단식 중단이후 현재까지 3차례 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은 고용안정협약 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은 사측의 현장 봉쇄 조치와 함께 공장가동은 `22.12.29자로 종료된 상태이고, `23.1.8부터 법적 청산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23.1.12에는 사측이 조합원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23.2.18자로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 및 참석 의원들은 이날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 현장방문과 노조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재 상황 및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침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고용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텐소코리아와 한국와이퍼의 고용안정협약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청산절차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환노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법과 원칙’이 오로지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할수밖에 없다”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일본계 기업이 우리 근로자와의 고용안정약속을 파기하고 불법 대체생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산을 지역구로 둔 김남국 의원도 “일본텐소자본은 기만적인 청산절차로 한국와이퍼 노동자는 물론 한국 정부와 법을 속이고 있다” 라며 “한국와이퍼 사태의 책임자인 텐소자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현대자동차와 현재 한국와이퍼 청산후 물적 시설만을 인수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디와이오토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을지로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와이퍼 사안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협약 위반의 대량해고가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 심각한 신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차원의 사태해결을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3. 1. 17.(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첨부자료①]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

##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DNWS, ㈜DNKR 및 ㈜KWB(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KWB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2020년 고용합의서 이행을 기본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회사는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충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회사는 와이퍼 이외의 아이템 중 일부를 가져와 충고용을 보장한다. 22년도 매출액은 320억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아이템과 이행계획서(안산으로 와이퍼사업부를 일원화, 시판판매(에프티마켓)등 포함)에 관하여 회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2개월 후 계획을 확정하도록 한다. 나아가 그 진척상황을 매월 고용안정협의회에 보고한다.
2.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약속한다.  
가. 회사는 사업진척에 따라 ㈜DNKR의 와이퍼사업부를 확충하고, 조합에서 검증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나. 올해 받은 신차수주를 비롯하여 앞으로 받는 신차수주의 경우 절대 반납하지 않는다. ㈜KWB의 물품·덴소 내의 관련사를 비롯해 덴소의 개입으로 대체 생산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  
라. 조합의 요청시 협의를 통해 ㈜DNWS, ㈜DNKR를 비롯한 관련 업체 방문을 승인하여 대체생산체계 구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 단, 노동조합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마. 회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재고 상황에 대해 조합에 보고하고 재고적재의 정당성을 조합과 함께 검토한다.
3. 이전, 매각, 양도, 청산, 구조조정 등  
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나. 회사는 부득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매각할 경우 모든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득불 안위적인 구조조정시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전 시월에 대해 ㈜DNKR 지급기준과 동등 수준으로 합의한다.

### 4. 본 합의서 불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본 합의의 일부 내용이라도 불이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노사에서 성실히 협의 확인하고, 즉시 시정한다.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가 조합원 1인당 1억원의 금액을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한다.

### 5. 효력발생

가. 본 협약은 당사자간 상호신뢰와 이행을 전제로 합의하는 것이며, 여기에 논의되지 않은 모든 제반사항은 상호합의하에 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나. 당사자는 재물금급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다. 본 합의서는 단재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합과 ㈜KWB의 대표이사가 서명날 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21.10.15

금속노동조합 한국와이퍼 분회장 **차유미** (서명) ㈜KWB 대표이사 [인함]

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인함]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장 [인함]

금속노동조합 서울안산지역지회장 **정형재** (서명)

상기 고용안정 협약의 내용을 인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연대책임자로서 보증하고 확약합니다.

㈜DNWS 대표이사 [인함]

㈜DNKR 대표이사 [인함]

[첨부자료②] 현장사진





우선반도체 노동자 고용안정 약속은 청산우수더니  
진심은 여퇴 청산?! 나크손친 정보통신

단체협약 위반하는 일방 정산 승인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